

배포 일시	2022. 8. 23.(화)		
담당 부서	자동차운영보험과	책임자	과 장 김은정 (044-201-3855)
		담당자	사무관 김태흥 (044-201-3858)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
이륜자동차의 교통질서 확립 및 안전운행을 위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.

< 보도 내용 (중앙일보 8.23(화) >

◆尹공약 '배달 오토바이 앞번호판'....임기 내 추진 어렵다

- 영업용 오토바이의 전면번호판 도입 공약은 최소 5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 증장기 과제로 검토

□ 현재의 후면번호판을 그대로 영업용 이륜자동차 전면부에 부착하는 것은 전면부에 번호판을 부착할 공간이 부족한 문제, 충돌사고 시 보행자 및 운전자의 부상 증가 우려 등이 있어 전문가 의견수렴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.

□ 국토교통부는 이륜자동차의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번호 스티커를 전면 또는 측면에 부착하는 방안, 번호판의 시인성을 강화*하는 방안 등을 전문가 자문, 해외 사례조사 및 연구용역을 거쳐 검토할 계획입니다.

* 자동차와 같이 전국번호판 도입을 통해 글자 크기 확대 및 필름식 번호판 도입 등

□ 아울러,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배달이 증가함에 따라 배달업체와 협력하여 안전운행 교육* 및 교통법규 준수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.

*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금년 7월부터 이륜자동차운전자 대상으로 안전교육 시행 중